

#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Ceremonial Costumes in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강사 김현경

교수 임상임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prof. : Hyun-Gyung Kim

Associate Prof. : Sang-lm Im

## 目 次

I. 緒 論

II. 韓國 新興宗教의 概觀

III.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

IV.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의 特性

V. 結 論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45 sects of seven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including Jeungsan sect, Tangun sect, Soowoon sect, Won Buddhism, Bongnam sect, Gahksedo sect, Shamanism sect through field study and various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lucidate how their religious ideas are reflected in their ceremonial costumes and what characteristics and underlying meanings these costumes have, and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new religious groups in Korea modified or mixed the designs or names of existing outfits to convey their ideas or beliefs in their costumes.
2. The costumes of new religious groups turned out to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in common: they all reflected the times, Korean tradition, ancestor worship.
3. I looked at the symbolicity, names, and types of the outfit, and their color scheme to establish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t turned out that they all symbolized the creeds and ideas of each religion. The names of the costumes such as Way-Robe, Law-Robe, and Ceremony-Robe, for instance, had to do

Corresponding Author: Kim, Hyun Gyung, Wonkwang University, Shin-dibg 730-8, Ik-San, Jun-buk 570-976, Korea Tel: 011-9439-1971  
E-mail: hyun2255@hanmail.net

with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 The most common type of costume consisted of traditional hanbok top, pants, robe, and some type of headpiece for men, and hanbok top and, skirt for women, and if women were to wear a robe, it usually meant the sect believed in sexual equality. There was also a tendency to simplify or minimize the dress code, which seems to indicate that the sect was trying to adapt itself to the times. The most common type of the outer garment for men was a robe with narrow sleeves, straight lapel, and no slits, and a robe with wide sleeves, straight lapel, and slits for women. The color scheme of the costumes included blue, white, yellow, red, and black, reflecting the influence of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idea and traditional preference for white of Koreans.

4. These religious costumes were worn at various ceremonies, ritual, and various anniversary services for the master and other dignitaries of the sect to render greater piety to those gatherings, to distinguish the sect from other religious group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eremony, and to heighten the devout feelings of the participants.

Thus, the structure (the symbolcity, names, and types of the outfit, and their color scheme) and religious background of the costumes of the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turned out to have inherited and mixed various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outfits and those of existing religions to symbolize their religious ideas.

Many religions rise and fall, and each has its own dress codes, and I hope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and data for other researchers and leaders of new religious groups that will emerge in the future.

**주제어(Key Words):** 의례복식(ceremonial costumes), 음양오행사상(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idea), 종교사상(religious idea), 상징(symbolcity), 한복(hanbok)

## I. 緒論

한국의 신흥종교는 1860년 水雲 崔濟愚에 의해 창시된 동학을 효시로 하여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현재 350여 개의 교단과 200여만 명의 신도가 있다<sup>1)</sup>.

신흥종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일부 사이비 종교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이나, 동학에 이어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으로 이어져 창립된 신흥종교는 19세기 중엽 이후 민족 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sup>2)</sup>하였음은 물론 현 사회에서도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오는 교단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기성종교가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 만큼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종교 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복식이 옷이라는 물체에 사람의 얼과 정이 전해지면서 그들의 삶과 사상을 실어 넣은 가시적인 문화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신흥종교의 교리·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신흥종교 중 계통 불명예 제외한 韓國에서 開創된 7개 宗團 즉, 甌山系, 檀君系, 水雲系, 圓佛敎, 奉南系, 覺世道系, 巫敎系 등의 45개 敎(표 1)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현재 의례적인 행사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중심으로 의례복식의 명칭 및 착장 유형과 의례복식의 형태, 색상 등 복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분석 고찰하여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의례복식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들은 복식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가를 考究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sup>3)</sup>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와 실

1) 동아일보, 1996년 12월 2일.

2) 유병덕, 『한국 민족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p.10-13.

3) 任相任,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 考察(I)』, 服飾, 韓國服飾學會, 第 19號, 1992.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 考察(II)』, 圓光大學校 論文集,

<표 1> 研究 대상 宗團 및 教團의 數

宗團名	教團名	教團數
甌山系	보천교, 선도, 순천도, 삼덕교, 동도법종금강도, 태극도, 증산교 본부, 보화교, 미륵불교, 증산법종교, 모악교, 무을교, 청도대향원, 대순진리회, 증산도장	15
檜君系	대종교, 단군성전천진전, 광명도, 한얼교, 단단학회, 대종교영암시교당,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삼성궁, 삼신도, 단군교종무청, 삼진도, 선덕학회	12
水雲系	천도교, 동학교본부, 수운교, 동학회중앙수도원, 동학성도교	5
圓佛敎	원불교	1
奉南系	한국불교대교종, 삼천교, 삼법수도교화원, 천지대안도, 성덕도, 자아도	6
覺世道系	각세도본원, 각세도천지원리교	2
巫敎系	도솔암, 인불도, 무량교, 천우교	4
합 계	총 7개 교단	45

물 자료인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례복식을 중심으로 이룬 작업과 현지조사 작업을 병행하여 자료를 정량화 한 후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II. 韓國 新興宗教의 概觀

### 1. 韓國 新興宗教 特徵

한국종교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신도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종교 단체를 의미하여 외래 종교와 국산종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선교 역사로 볼 때 전자를 기성종교, 후자를 신흥종교(신종교) 또는 민족종교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신흥종교들은 교주의 역사, 교리의 맥락, 교단의 체제 등을 기초로 편의상 기성종교에서 분파된 신흥종교(유교계, 불교계, 기독교계), 한국에서 개창된 신흥종교(단군계, 수운계, 원불교, 봉남계, 각세도계, 무속계, 계통불명), 외래 신흥종교(일본계, 중국계, 기타 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신흥종교의 발생 양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그 발생 동기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 제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나, 특히 한국의 개창 신흥종교는 구한말의 혼

란, 이조의 패망, 일제의 침략, 8·15해방, 한국전쟁 등 국가적 대변혁의 악순환 상태에서 정치·사회·종교적 불안, 가치관의 부재 등 복합적 사회병리를 요인으로 창립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출연한 한국 개창 신흥종교는 대부분 창교자의 깨달음에 의하여 창교되었고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 그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5)6)</sup>.

첫째로 宗教合 性이다. 신흥종교는 기존의 儒·佛·道敎는 물론 서양의 기독교, 민속신앙까지 융섭, 활용하는 종교 회통적 성격을 지닌다. 천도교는 유교를 중심으로 儒·佛·仙 三敎를 合 하고 있으며, 증산교는 甌山을 주체로 하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회통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後天開闢性이다. 이 사상은 기성종교에서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데 반해 현세적 지상낙원을 지향하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先天의 특징은 어둠

第 27輯, 1993.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의 特性에 關한 考察』, 服飾文化研究, 服飾文化學會, 1997.

4)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 『韓·中·日 三國 新宗教 實態의 比較研究』,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992, p.34.

5) 金洪喆, 『韓國 新宗教 思想』, 集文堂, 1989, p.16-24.

6) 문상희,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 한국종교사학회, 1983, p.325.

고 미개하고 혼란한 세상으로 後天의 특징은 밝은 세계·문명세계·질서나 평등의 세계·합리의 세계로 규정되고 있다.

셋째, 民族主體性이다. 신흥종교 창립자들은 강한 민족 주체 의식을 가지고 한국이 장차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후천의 낙원세계가 건설되리라는 것이다.

넷째, 人間中心性이다. 선천의 종교들이 神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 이들 신흥종교 속에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思想과 教義가 되어있다. 이들 신흥종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억누르고 말살시키는 사회였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인권을 되살리고 존중하는 인권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社會改革性이다. 대다수의 신흥종교 창시자들은 강한 사회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시 사회가 크게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사회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水雲의 사회개혁의 하나인 廣濟倉生運動은 훗날 東學革命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3·1 독립운동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밖에 말세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그 교단의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교세주 신앙, 기존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자기 종교에서 통일되고 있다고 하는 통일사상, 전통문화를 계승 내지는 발전시키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성, 상하·존비·남녀 등을 가리지 않는 평등성 등도 신흥종교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 III.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

宗敎服은 일반복과는 달리 단순한 표현욕이나 장식적 차원을 넘어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뚜렷하며 복장 자체로의 수많은 상징과 암시를 주어 그 복장을 착용한 자가 믿는 교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既成宗敎의 거의 모든 교에서는 의례복식이 제정되어 교의 사상과 특징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한국 개창 신흥종교 각 宗團의 의례복식을 名稱, 着裝類型, 形態, 色相을

중심으로 한국 개창 신흥종교 전체적인 의례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儀禮服飾의 名稱

##### 1) 衣服

의례복의 명칭은 <표 2>와 같이 남·녀 의복에서 도복(도의), 법복(법의), 예복, 제복, 교복, 선복, 원복, 정복, 외수의, 내수의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남자는 도복이 8건 중에서 증산계와 단군계에서 각각 3건씩 보이며, 법복은 5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3건이며, 예복은 5건 중에서 단군계와 수운계에서 각각 2건씩 불리우고 있다. 여자는 도복이 8건 중에서 증산계와 단군계에서 3건씩, 예복은 5건 중에서 단군계에서 2건이 나타나며, 법복은 4건 중에서 증산계, 단군계, 봉남계, 무교계에서 각각 1건씩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자는 도복, 법복, 예복, 여자는 도복, 예복, 법복의 순으로 그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복, 법복, 예복의 명칭이 많이 사용된 것은 신흥종교들이 기성종교인 道敎, 佛敎, 儒敎思想에 연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성종교 예복의 명칭을 차용하여 의례복식의 명칭을 통해 그들의 기본 사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원불교는 불법을 주체로 하여 창립된 종교이다. 의례복은 법복과 법막으로 구성되어 다분히 불교적이면서 법을 골고루 전하고 불보살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즉, 명칭에 있어서 도복은 道敎를 법복은 佛敎를 예복은 禮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儒敎를 각각 상징하고 있어 신흥종교 특징 중 하나인 儒·佛·仙思想이 그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冠帽

관모는 <표 3>과 같이 남자는 23건, 여자는 15건으로 남자 교도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남·녀 관모의 명칭은 통천관, 유건, 삼층관, 선관, 연관, 연

7) 任相任, "韓國 新興宗敎의 儀禮服飾-甌山系 彌勒佛敎를 中心으로-", 서정회교수 회甲紀念論叢, 圓光社, 1991, p.17.

〈표 2〉 韓國 開創 新興宗教 衣服의 名稱

區分 宗團名	衣服														計											
	男子							女子																		
	교복	도도의복의	범범의복의	신복	예복	원복	장복	계복	내수의	외수의	장삼	가사	명칭無	소계												
甌山系	3	3	3				2	1	1				5	14	3	1	3	1	1	2	1			5	13	27
檀君系	3	3	1		2		1						3	11	3	1		1		1				3	11	22
水雲系	1			1	2								1	5	1									2	5	10
圓佛敎	1												1	1											1	2
奉南系			1		1					1	1		1	5										2	4	9
覺世道系	2		0			1								3	2										3	6
巫敎系														0											0	0
소계	2	8	5	1	5	1	1	3	0	1	1	1	10	39	2	8	3	1	5	1	1	0	0	12	37	76

〈표 3〉 韓國 開創 新興宗教 冠帽의 名稱

區分 宗團名	衣服														計												
	男子							女子																			
	삼총관	신관	연관	연화관	예관	인화관	정자관	칠총관	통친관	예모	원모	제모	수건	유건		모자	피랑자	명칭無	소계								
甌山系			1		1	1		1	2						1	1	1	9	1						5	14	
檀君系											1	1	1	1			3	7				1			4	7	14
水雲系	1	1	1			1							1				5	1							1	6	
圓佛敎																	0								0	0	
奉南系																	0								0	0	
覺世道系											1						1	2						1	2	4	
巫敎系																	0								0	0	
소계	1	1	1	1	1	1	1	2	1	1	1	1	1	2	1	1	23	0	1	1	1	1	1	1	5	15	38

화관, 예관, 인화관, 정자관, 칠층관, 예모, 원모, 제모, 수건, 피랑자 이 외 명칭이 없이 7개 종단에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남자의 관모는 대부분이 1건씩 그 빈도가 보이거나 통천관은 증산계에서 2건과 유건은 단군계, 수운계에서 각각 1건씩 나타나고 있고, 여자의 관모는 전체 15건 중에서 단군계, 증산계, 수운계, 각세도계 등에서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그 명칭이 다양함은 각 종단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적인 의미를 관모에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수적인 면에서 남자의 관모가 많은 것은 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여자 교도들 보다는 남자 교도들의 의례복식에서 갖추어진 모습이 보이며 남·녀 의례복식 중에서 관모를 통하여 그들의 교리 사상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관모의 명칭에서 각 교단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모의 명칭에 있어서 연꽃의 잎을 모방하여 만든 연화관, 연관이 있으며 그 외 선관, 유건 등 각각 도교, 불교, 유교를 상징하는 명칭들이 있어 의례복과 마찬가지로 儒·佛·仙 思想이 관모의 명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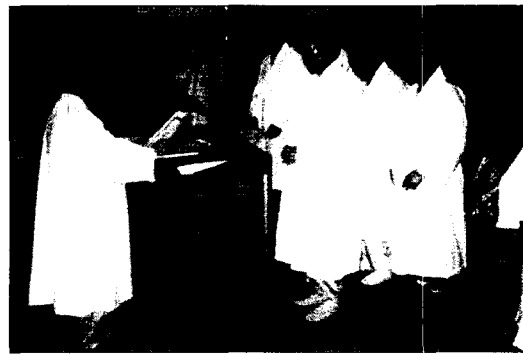
## 2. 儀禮服飾의 着裝類型

의례복식의 구성에서 기본복(I)이 한복의 바지·저고리일 때 남자는 기본복+포+관모(사진 1)와 기본복+포(사진 2)의 순이며, 여자는 기본복(사진 3), 기본복+포+관모(사진 4)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고, 기본복(II)이 양장, 양복일 때 남자와 여자 모두 기본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표 4. 5〉에서 착용유형의 전체적인 착용 빈도를 볼 때 기본복이 I일 때 남자는 기본복·포·관모의 구성이 증산계, 단군계, 수운계 각각 4건씩 보이며, 기본복·포의 구성은 증산계는 3건 봉남계는 2건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는 기본복이 13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4건, 단군계, 수운계, 봉남계에서 각각 3건씩 나타나고 있다. 기본복이 II일 때 남자는 증산계는 3



〈사진 1〉 증산계 삼덕교 男子 儀禮服飾, 2000. 7. 25.



〈사진 2〉 증산계 태극도 男子 儀禮服飾, 부산 태극도 尹大漢님 제공

건, 단군계는 2건, 봉남계는 1건이 보이며, 여자는 기본복이 II일 때 10건 중에서 봉남계, 무교계는 각각 3건, 단군계, 증산계는 각각 2건씩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고유의 전통 의복의 특징이 많이 보이는 종단은 증산계, 단군계, 수운계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의례복으로 양복을 착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장·양복 차림도 보이고 있어 신흥종교 사상 속에 내포된 生活化, 時代化를 의례복에 반영하여 현대적인 흐름에 따라 衣制를 두기도 한다.

〈표 4〉 韓國 開創 新興宗教 男子 儀禮服飾의 着裝 類型

區分	기본복	기본복 +포	기본복 +포 +관모	기본복 +포 +관모 +케이프형	기본복 +포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 +포 +배자형 +배자형 +케이프형	기본복 +포 +배자형 +케이프형	기본복 +당의	기본복 +조끼 +포	기본복 +포 +가사형	기본복 +포 +관모 +가사형
敎團名											
甌山系	1	3	4	1	1						
檀君系		1	4	1					1		1
水雲系			4		1						
卍佛敎											
奉南系		2								1	
覺世道系											
巫敎系											
소 계	1	6	12	0	1	1	1	0	1	1	1
區分	기본복II	기본복II +포	기본복II +포 +관모	기본복II +포 +가사형	기본복II +포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II +포 +케이프형	기본복II +포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II +포 +케이프형	기본복II +포 +관모	기본복II +포 +관모	기본복II +포 +관모
敎團名											
甌山系	1				2		1		1		15
檀君系	2			1			1				13
水雲系		1									7
卍佛敎								1			1
奉南系	3										6
覺世道系			1								2
巫敎系	3										3
소 계	9	1	1	1	2	2	2	1	1	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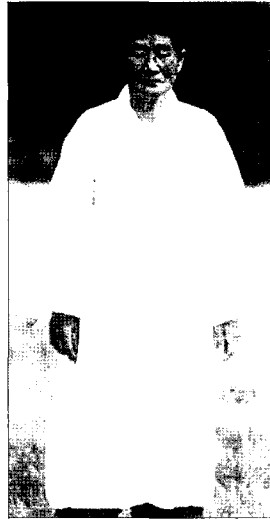
〈표 5〉 韓國 開創 新興宗教 女子 儀禮服飾의 着裝 類型

區分	기본복	기본복 +포	기본복 +포 +관모	기본복 +포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 +포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 +포 +배자형 +관모	기본복 +배자형 +케이프형	기본복 +당의	기본복 +조끼 +마고자형 +관모	기본복 +조끼 +포	기본복 +포 +가사형	기본복 +포 +관모 +가사형
敎團名												
甌山系	4	2	3	1				1				
檀君系	3	1	2	1			1			1		
水雲系	3		1									
圓佛敎												
奉南系	3										1	
覺世道系												
巫敎系												
소 계	13	3	6	2	0	0	1	1	0	1	1	0
區分	기본복II	기본복II +포	기본복II +포 +관모	기본복II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II or 기본복II +포	기본복 I or II +포 +관모	기본복 I or II +케이프형 +관모	기본복 I or II +포 +가사형	기본복+포 or 양복	기본복 +조끼 +포	기본복 +포 +가사형	소 계
敎團名												
甌山系2				2							15	
檀君系	2		1			1						13
水雲系		1										5
圓佛敎												1
奉南系	3											6
覺世道系			1	1								2
巫敎系	3											3
소 계	10	1	1	1	2	1	0	0	0			45





〈사진 3〉 증산계 보화교  
女子 儀禮服飾, 2000.11. 6.



〈사진 4〉 증산계 증산법종교  
女子 儀禮服飾, 1999.10. 2.

교단에 따라서 그들의 敎理·思想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착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증산계 종단의 미륵불교의 의례복식은 '正服'을 입고 '袍衣'를 두른 후 仁和冠을 쓰는데, 正服은 道敎를 袍衣는 佛敎를, 仁和冠은 儒敎를 상징하여 전체적인 의례복식 구성을 통해 宗教合·思想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 전통 한복 차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을 의례복식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儀禮服飾의 形態

韓國 開創 新興宗教인 7개 宗團 45개 敎團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교단에서의 의례복식은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형태를 그들의 宗教思想의 표현이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키고 있어 세부적인 형태에서 기존의 전통복식과 다른 유형이 많다. 그러므로 전통복식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 신흥종교 복식이 우리의 것을 영향받아 변형시켜 왔다는 점에서 가능한 그 特徵的인 면을 중심으로 우리의 복식 용어로 정의하였다.

#### 1) 衣服

유교를 숭상하고 예의와 격식을 중히 여기었던 조선시대에 착용한 포는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지만 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무의 유무, 트임의 위치 및 트임의 유무, 소매 형태 등에 따라 착용하는 대상과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sup>8)</sup>. 신흥종교에서 表衣로 착용하고 있는 포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袍는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 즉 표의<sup>9)</sup>라고 하며 表衣는 겉옷<sup>10)</sup>을 일컫고 있는 말로 여기에서는 표의를 그 세부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가장 밖에 착용한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을 모두 지칭하고자 한다.

그 예로 주의형직령포(周衣型直領袍)는 왼쪽길만 있고 소매가 없으며 형태는 두루마기와 같으나 자락에 트임이 없고, 도포형직령포(道袍型直領袍)는 왼쪽 길만 있고 소매와 깃은 없다. 답호와 소매를 제외한 외형은 같으나 무의 형태와 옆주름 구성 양식이 다르다. 즉 답호의 무가 사다리꼴인데 비해 이것은 직사각형이므로 옆주름분이 답호에 비해 많다<sup>11)</sup>고 하였다.

따라서 7개 종단 표의 유형은 --형 ... 포로 지칭하고자 한다. 즉, --형은 전체 포의 형태를 말하며 ...포는 깃의 형태의 포를 지칭하고자 하며 그 특징은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개창 신흥종교 7개 종단의 교단에서 착용되고 있는 남자 表衣의 형태는 <표 6>과 같이 表衣 45건 중에서 11건으로 窄袖周衣型直領袍(사진 5)를 많이 입고 있으며 7건으로 廣袖周衣型直領袍(사진 6)를 착용하며 그 외 대창의형직령포, 도포형 직령포, 가사형, 착수직령포, 착수곡령포, 광수주의형곡령포, 대창의형곡령포, 중치막형포, 학창의형포, 광수심의형곡령포, 착수철릭형직령포, 저고리형, 마고자형, 배자형, 원피스형, 케이프형 등을 착용하고 있다.

8)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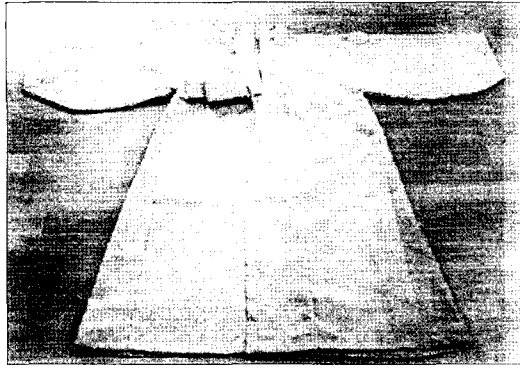
9) 김영숙, 「한국복식사사전」, p.510.

10) 김영숙, 위의 책, p.512.

11) 안명숙, 「한국복식사」, 예학사, 1998, p.68.

〈표 6〉 韓國 開創 新興宗教 衣服의 形態

區分	衣服 男子																	計							
	착수지령포	광양수지령포	착수곡령포	착수주의형각령포	광양수주의형각령포	착수주의형장령포	광양수주의형장령포	대창의형장령포	대창의형구령포	중지마령포	합창의형포	스찰의형포	도포형각령포	광양수신의형각령포	착수철립형각령포	저구리령포	마고자령포		배자령포	원삼령포	당의령포	가사령포	원피스령포	케이프령포	소계
宗團名																									
龜山系				5	4			1		1			1										1		15
檀君系	1			3	1			1	1				1	1			1					1	1		13
水雲系			1	1	1			1			1							1							8
圓佛敎						1															1				2
奉南系							2															1			4
覺世道系																									
巫敎系																							2	1	3
소계	1	0	1	11	7	0	1	3	1	1	1	0	3	1	1	1	1	1	0	0	4	3	3	0	45
區分	衣服 女子																								
宗團名	착수지령포	광양수지령포	착수곡령포	착수주의형각령포	광양수주의형각령포	착수주의형장령포	대창의형장령포	대창의형구령포	중지마령포	합창의형포	스찰의형포	도포형각령포	광양수신의형각령포	착수철립형각령포	저구리령포	마고자령포	배자령포	원삼령포	당의령포	가사령포	원피스령포	케이프령포	소계		
龜山系																								6	
檀君系		1					1	1									1					1		8	
水雲系			1				1														1			2	
圓佛敎																					1			4	
奉南系																								0	
覺世道系																							2	3	6
巫敎系																								0	0
소계	0	1	1	0	2	0	0	3	1	0	0	1	1	1	0	0	1	2	1	2	2	2	2	21	



<사진 5> 증산계 모악교 남자 法衣, 2000.11. 6.



<사진 6> 증산계 증산법종교 男子 儀禮服飾, 1999.10. 2.



<사진 7> 증산계 미륵불교 男子 儀禮服飾, 2000. 6.



<사진 8> 수운계 천도교 男·女 儀禮服飾, 2000.10.26.

그 외 케이프 형태(사진 7)는 표의와 같이 상하가 하나로 된 겹옷은 아니나 표의 위에 착용되고 있는 걸치거나 두르는 형을 전체적으로 케이프형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증산계 미륵불교의 袍衣, 한얼교 법의, 원불교 絡子, 한국불교태고종(청강사)의 袈裟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 表衣의 형태는 21건 중에서 3건으로 大襟衣 型直領袍(사진 8)를 많이 입고 있으며 2건으로 광수주의형직령포(사진 4), 원삼형, 가사형, 원피스형, 케이프형을 착용하며 그 외 광수직령포, 착수곡령포, 대창의형곡령포, 도포형직령포, 광수심의형곡령포,



<사진 9> 단군계 대종교 守護의 儀禮服飾(재복) 大종교제공 2000.10.25.

착수철릭형직령포, 배자형 등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대종교의 의례복(사진 9)은 의식을 거행하

는 자에 따라 주사복, 수호복, 예원복이 있으나 그 형태는 곧은 깃에 옆트임이 없고 착수로서 똑 같으며 가장자리 선의 색상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 고유 袍의 형태이며, 색상도 우리 민족의 상징색인 白色을 사용하고 재질도 옛부터 선조들이 사용해오던 견직물을 사용하여 民族 主體性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매가 넓은 포는 남성, 존귀를 상징하여 특수 여자들에게만 착용되는 의복이었다. 그런데 몇몇 교단에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廣袖周衣型直領袍를 착용한 것은 남·녀 平等思想의 반영이며 人間中心思想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교단의 表衣가 우리의 袍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교단이 한국에서 개창된 관제로 의례복 제정시 디자인 발상의 기본을 우리 옷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2) 冠帽

남자 관모의 형태는 <표 7>과 같이 남자는 程子冠型, 弁型이 많으며, 여자는 弁型, 蓮花冠型, 程子冠型 순으로 그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정자관형<사진 7>은 7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5건, 수운계에서 2건이 보이고, 변형<사진 9>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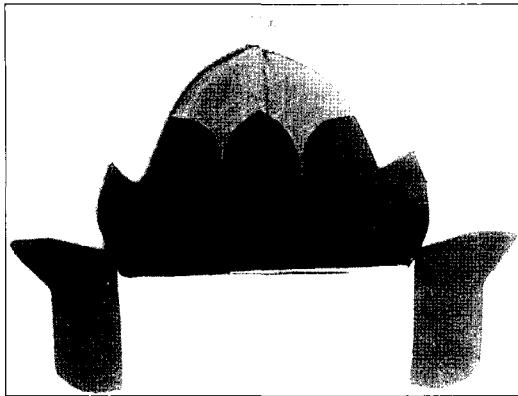
<사진 10> 단군계 단단학회 男·女 帽子, 2000.10.27.

건 중에서 단군계에서 4건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에서 변형<사진 10>은 3건 중에서 단군계에서 2건, 연화관형<사진 11>은 증산계와 수운계에서 각각 1건씩, 정자관형<사진 12>은 증산계에서 2건, 건형<사진 13>은 단군계, 각세도계에서 각각 1건씩 나타나고 있다.

程子冠은 조선시대 사대부 유생들의 관모로서, 이를 착용한 자는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신흥종교 교단에서도 관모를 통해 儒敎的 意味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권위의 표현 수단으로 활

<표 7> 韓國 開創 新興宗教 冠帽의 形態

區分 宗團名	冠帽																				計		
	男子										女子												
	감투형	건형	립형	망건형	변형	복두형	연화관형	유건형	정자관형	화관형	소계	감투형	건형	립형	망건형	변형	복두형	연화관형	유건형	정자관형		호관형	소계
龜山系			1	2		1				9								1		2	1	4	13
檀君系	1	1			4		1			7	1	1				2						4	11
水雲系							2	1	2	5							1					1	6
圓佛敎										0												0	0
奉南系										0												0	0
覺世道系		1			1					2		1				1						2	4
巫敎系										0						0						0	0
소 계	1	2	1	2	5	1	2	2	7	0	23	1	2	0	0	3	0	2	0	2	1	11	34



<사진 11> 증산계 무을교 女子 蓮冠, 2000. 7. 7.



<사진 12> 증산계 동도범종금강도  
男·女 儀禮服飾, 2000. 9.

용한 것 같다. 또한 정자관과 비슷한 형이 여자 관모로 제정되어 착용되고 있는 것은 남녀 평등사상의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정자관 다음으로 많이 착용된 弁髻은 상대 우리나라 고유의 관모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단군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그 세부적인 형



<사진 13> 각세도계 각세도본원 儀禮服飾, 2000.11.15.

은 다소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民族 主體性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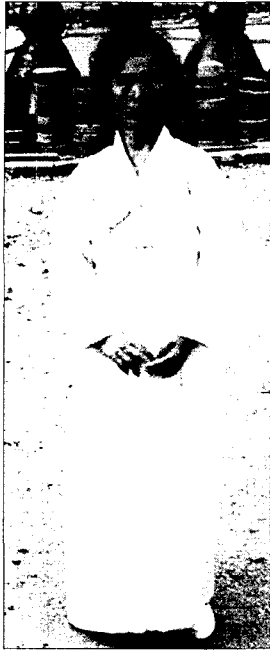
이 외에도 관모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 사상을 의복보다 관모를 통해서 象徴的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 4. 儀禮服飾의 色相

##### 1) 衣服

의복의 색상은 남자는 白, 玉, 黃, 하늘, 灰色의 순서로, 여자는 白, 黃, 玉, 灰, 하늘색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白色<사진 2>이 전체 18건 중에서 단군계에서 8건, 증산계에서 7건이며, 玉色<사진 1>은 전체 6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5건, 黃色은 각세도계에서 2건이 보인다. 여자는 白色<사진 14>이 전체 19건 중에서 단군계에서 9건, 증산계에서 5건, 黃色<사진



〈사진 14〉 단군계 삼성궁 여자교도 儀禮服飾, 2000.10.15

12)은 증산계에서 4건, 각세도계에서 2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白衣好尙은 夫餘 사람의 白尙衣, 新羅 사람의 服色尙素에서부터이며, 특히 朝鮮人の 옷색은 白色과 玉色이다. 수차에 걸친 白衣禁令에도 굴하지 않고, 上流階層과 庶民層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주로 白衣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고대인은 太陽을 숭배하는 原始宗教性에서 백의를 입었다는 說, 高句麗의 天民思想의 象徵說, 民族의 善心說, 朝鮮人の 白衣는 宇宙를 표현하는 總體色이라는 說, 人工을 배제하고 自然을 즐겨하는 性品에서라는 說 등 긍정적인 설이 있고 喪禮와 祭禮를 중시하는 國民生活에서 喪服用 시기가 길어 習俗化된 것이라는 說, 당시 우리 나라에서도 染料의 生産과 染色技術이 부족하였다는 說, 服色으로 階級을 구별하였으므로 庶民層은 부득이 白衣를 입었다는 부정적인 說<sup>12)</sup>이 있을 정도로 백색은 新興종교 의례복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古代부터 중요한 색 중 하나이다.

또한 陰陽五行思想(사진 11)의 기본이 되는 靑, 赤, 黃, 白, 黑 등 正色이 사용되고 있어 남·녀 의복 색상에서 음양오행 사상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五正色 중에서 남·녀 모두 白色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은 民族主義思想의 표현인 것 같다.

白色 다음으로 黃色이 선호된 것은 황색이 음양오행의 색상 중에서 가장 귀한 색으로 皇帝, 尊貴, 神聖 등을 상징하고 있어, 그 색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宇宙의 中心이 되고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 고자 한 人間中心思想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교단에서는 우리 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의례복의 색을 동양의 상징색인 靑色을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하여 청색계열을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례복식 색상의 특징은 첫째, 白色은 우리 나라에서 의식이나 서민의 일반 服色으로 많이 착용된 색이며 특히 古代부터 대다수 民衆의 服色으로 널리 選好되었고 우리의 民族의인 特性이 잘 나타나고 있어 白衣民族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陰陽五行의 色相이 사용되고 있다. 白色 또한 陰陽五行 색상 중 하나이며 그 외 靑(하늘, 玉), 赤, 黑, 黃色이 의복에서 보이고 그 중 黃色은 陰陽五行의 색상 중에서 가장 귀한 색으로 皇帝, 尊貴, 神聖 등을 象徵하고 있어 그 색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重要하고 귀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

## 2) 冠帽

관모의 색상은 남자는 白色, 玉色, 黃色, 여자는 白色, 黃色, 灰色, 하늘색 등 순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자는 백색이 18건 중에서 단군계가 8건, 증산계가 7건이며, 옥색은 6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5건이 보이며, 황색은 5건 중에서 각세도계가 2건이며 나머지는 증산계, 원불교, 무교계에서 각각 1건씩 나타나고, 여자는 白色이 19건 중에서 단군계가 9건, 증산계가 5건이며, 황색은 7건 중에서 증산계가 4건이 보이고 있어 역시 백색 사용이 가장 많다.

12) 朴京子, 「韓國服飾論考, “惠園風俗畵에서 본 朝鮮後期の一般服飾”, 新丘文化史, 1983, p.115, 116.

즉, 冠帽에서 보이는 색상도 의복에서 나타나는 색상의 특징이 동시에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의 特性

##### 1. 儀禮服飾의 共通的인 特徵

###### 1) 時代思潮의 性向

한국 개창 신흥종교는 19세기 이후 20세기 초에 개창되어 그 발생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 시대사조적인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신흥종교 의례복식에서도 이러한 시대사조적인 성향이 보이고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소매가 넓은 관복의 포와 소매가 좁은 편복포가 혼용되었는데,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의 편복포는 대체로 소매가 넓은 포였으나 甲申政變(1884년) 이후 신분에 구별 없이 모두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착수주의형직령포)를 입게되면서<sup>13)</sup> 이러한 변화가 그 당시 창립된 신흥종교 종단의 의례복식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흥종교 의례복식에서 廣袖周衣型和 窄袖周衣型이 고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 시대사조의 커다란 사상 중 하나로 인간 평등사상<sup>14)</sup>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례복식에 반영되어 대다수 신흥종교에서 여자도 남자와 함께 의례복식을 착용하고 의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흥종교 의례복식들은 창립 초기에 제정된 복식에 비해 점차 간소화, 현대화, 생활화의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 또한 시대사조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2) 民族的 性格

개창 신흥종교 교단 의례복식의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전통 한복의 착용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것을 중시하는 신흥종교의 민족적 성격이 강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례복식의 외형적인 면은 전통복식과 비슷하나 세부적인 형태 측면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각 종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적 교리에서 그들이 중시하는 면을 더욱 강조하여 의례복식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례복에서 사용된 白色은 고대부터 민중의 복식으로 선호되어왔던 색으로 우리 민족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백색은 7개 종단에서 33건이 보이며 그 중 단군계는 14건, 증산계에서는 11건이 나타나고 있어 단군계와 증산계에서 많이 보이며 특히, 신흥종교 7개 종단 중에서 우리의 고유신앙으로 예로부터 행해진 제천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단군계에서 민족적인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 3) 教意的 性格

신흥종교 특징 중 하나인 儒·佛·仙 三教合一思想의 영향으로 儒·佛·仙 思想이 의례복식의 象徴性, 名稱, 着裝 類型, 形態, 色相 등에 많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어 7개 종단에서 儒·佛·仙 三教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각자 교리에 따라 그들이 중시하는 것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성향이 의복이나 관모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즉, 그 중에서도 증산계는 유교적인 면, 원불교는 불교적인 면, 단군계·무교계는 도교적인 면을 더욱더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 외 陰陽五行 思想이 색상에서 많이 표현되어 의복이나 관모, 교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백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白衣民族主義思想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祖上崇拜思想

조상숭배 사상은 동양사회의 오랜 전통이며 유교가 보급되면서 특히 강조<sup>15)</sup>되어 왔다. 신흥종교 7개 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儀禮', '儀式', '치성' 등은 모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증산계, 단군계, 수운계, 각세도계, 무교계에서 착용되는 의

13) 안명숙, 김용서, 『한국 복식사』, 예학사, 1998, p.211.

14) 任相任, 「新宗教 服飾과 開化期 思想에 關한 研究」, 圓光大論文集 第 31輯, 1996, p.3.

15)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 위의 논문, p.418.

례복식은 제례 의식에만 착용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2. 儀禮服飾의 構造的인 特徵

### 1) 儀禮服飾의 象徵性

종교의례 복식에는 의례의 종류에 따라 복식의 색상, 문양, 형태, 장식품 등 대부분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sup>16)</sup> 한국 개창 신흥종교의 의례복식에서는 의례복식의 명칭, 착용 유형, 형태, 색상 등을 통하여 意味나 思想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증산계 교단에서는 의복의 여밈을 우입이 아닌 좌입으로 한다든지 의복의 착용에서 의도적으로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존의 틀을 깨는 형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는 현재를 중심으로 以前과 以後를 區分하여 전면적인 변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상인 後天開闢思想을 의례복에 상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운계 교단에서는 선관, 선복, 도관, 도복, 불모관, 천의, 법대 등의 의복의 명칭과 ㄱ乙마크, 봉황, 학 문양, 일, 월, 성신 등의 문양에서 볼 수 있듯이 儒·佛·仙 三教를 상징하는 문양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儒·佛·仙 合一思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 本源處이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一圓相을 의복의 衲子에 부착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象徵化하였고 의례시 경건함을 지니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봉남계에서는 전통 한복을 착용하여 民族主義思想을, 각세도계에서는 색상으로 陰陽五行思想을 의례복식에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례복식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신분 표시, 당사자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禮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 개창 신흥종교의 의례복식은 종교의 의례복식으로써의 그들의 敎理나 思想 등이 象徵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結 論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부터 출현하여 변화하는 한국 근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한국에서 開創된 甌山系, 檀君系, 水雲系, 圓佛敎, 奉南系, 覺世道系, 巫敎系 등 7개 新興宗團 45개 敎를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흥종교의 思想이 어떻게 의례복식에 표현되고 있으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한국 개창 신흥종교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敎理나 思想 등을 의례복식에 표현하기 위해 한국 전통복식을 차용하여 형태나 명칭들을 변형, 또는 혼용시키고 있다.

의례복식의 表衣 形態는 현재의 두루마기인 窄袖 周衣型直領袍가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여자에게서도 廣袖袍의 형태가 착용되고 있다. 이는 民族主體性和 남·녀 平等思想의 반영이다. 또한 각 교단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思想, 敎理 중에서 강조하는 것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우리의 전통 의복을 의례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의례복식의 色相은 주로 靑, 赤, 黃, 白, 黑의 색상을 사용하여 陰陽五行思想에 바탕을 둔 색채 사용이 강했으며, 民族主體性的의 표현으로 白色 사용이 많다. 그 외 계절과 방위에 따라 의복의 색상을 달리 사용하여 그들의 思想, 敎理를 반영하고자 한다.

의례복식의 名稱은 각 교단에서 의복은 도복(도의), 법복(법의), 예복으로, 관모는 통천관, 연관, 연화관, 예모, 칠층관 등 佛敎的, 儒敎的, 道敎的인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각 교단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기존의 儒·佛·道敎의 복식 명칭을 차용하여 그들의 사상을 알리고자 한 것 같다.

의례복식의 着裝 類型은 남자는 한복의 저고리와 바지 위에 포와 관모를 착용한 유형과 양복을 착용한 유형, 여자는 한복 저고리 치마와 양장을 착용한 유형이 비슷하다. 즉, 제례의 의미를 지니는 儀禮, 儀式, 치성과 같은 행사에서 우리 전통복식을 의례복식으로 고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점차 의례복

16) 신영선, 『복식의 정신문화』, 교문사, 1998, p.51.



제정이 악화되거나 簡素化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대적인 상황이 의복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韓國 開創 新興宗教의 의례복식은 形態, 色相, 名稱, 着裝 類型 등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과 기성 종교의 복식을 계승하고 차용하여 그들의 敎理·思想을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신흥종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三敎 合 思想, 後天開闢思想, 民族主體思想, 人間中心思想, 社會改革性, 平等思想 등 다양한 사상들을 그들 교단의 사상에 부합되도록 의례복식에 반영하여 대다수 교단들이 공통되면서도 차별화된 의례복식을 갖추고 있다.

신흥종교는 끊임없이 創立과 消滅을 거듭하므로 본 실태 연구가 여러 宗團의 敎團에서 의례복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신흥종교 복식을 통해 신흥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착장자가 어떤 의복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하게 될 때 그가 착용한 복식의 요소나 그 외 복식의 취향에 따라 상징화가 이루어지며 관찰자는 그것으로부터 客觀的 意味 또는 主觀的 意味를 把握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이므로 象徵의 意味 解釋에 있어서 主觀的·多義的으로 되어 가고 있으므로<sup>17)</sup>, 본 연구에서도 주로 主觀的 解釋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17) 유지현 외 2인,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복식문화연구 제 7호, p.35.

## ■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96년 12월 2일.  
 金洪喆(1989). 韓國 新宗教 思想. 集文堂.  
 문상희(1983).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 한국종교사학회.  
 신영선(1998). 복식의 정신문화. 교문사.  
 안명숙, 김용서(1998). 한국 복식사. 예학사.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1992). 韓·中·日 三國 新宗教 實態의 比較研究.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유병덕(1985). 한국 민족종교 사상론. 시인사.  
 유지현 외 2인.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복식문화연구, 7.  
 任相任(1992).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 考察(I). 服飾, 韓國服飾學會, 19.  
 \_\_\_\_\_(1993).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 考察(II). 圓光大學校 論文集, 27.  
 \_\_\_\_\_(1997).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의 特性에 關한 考察. 服飾文化研究. 服飾文化學會.  
 \_\_\_\_\_(1996). 新宗教 服飾과 開化期 思想에 關한 研究. 圓光大論文集, 31.  
 (2002년 11월 5일 접수, 2003년 2월 3일 채택)